



[경제종합]尹 대통령 다보스포럼 참석 등 스위스 경제외교 돌입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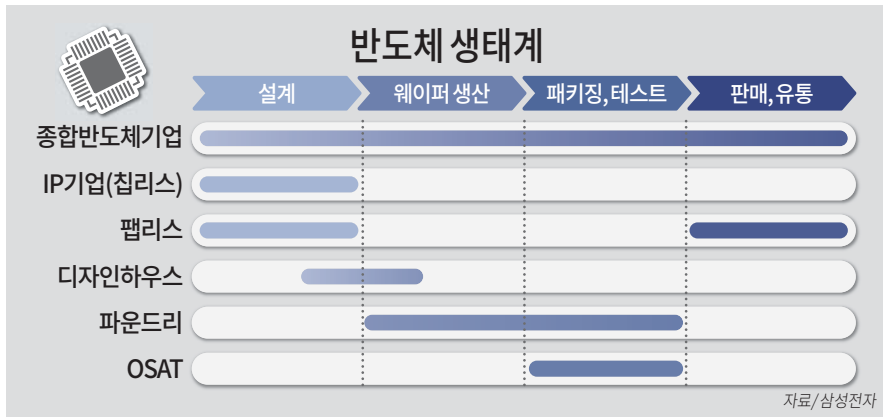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368.32 (-11.07)	코스닥	711.75 (+2.04)
금리 (미국 3년)	3.390 (-0.094)	환율 (원/달러)	1237.40 (-1.30) (18일)

장고 들어간 JY... '뉴삼성 빅딜 1호'에 기대감 증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년남은 '의미있는 M&A' 약속 한중희 부회장 '좋은 소식' 예고
팹리스 대안 '디자인 하우스' 지목
패키징 사업부문에 美 A사 거론



삼성전자가 조만간 '의미있는 M&A'를 단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약속했던 3년이 임박해왔고, 글로벌 시장 침체로 기업 시장 가격도 안정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성공적인 M&A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왔던 만큼, 이번에는 어떤 분야를 지목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다양한 기업을 후보군으로 두고 인수를 고민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1년 초 M&A 계획을 공식화하고 3년 안에는 M&A를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속했던 기간을 1년여 남겨둔 상황, 인수할 기업을 거의 확정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중희 부회장도 '좋은 소식'을 예고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삼성전자는 2016년 하만을 인수한 이

후 그렇다할 M&A를 하지 않아왔다. 이재용 회장이 사법리스크로 자리를 비우고 있던 게 치명적이었고, 인수 대상을 물색하긴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실제 인수 작업까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서는 M&A를 수행할만한 환경을 갖춘 모습이다. 일단 이재용 회장이 복권을 통해 경영에 복귀했고, 현금성 자산도 여전히 100조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치솟았던 기업 가치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가장 유력한 분야로는 반도체가 꼽힌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주력 사업으

로 하고 있는 데다가, 일찌감치 전장 반도체 기업인 NXP 인수를 검토한 적이 있는 만큼 결국 새로운 M&A 대상도 반도체 기업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반도체 혁신센터장에 반도체 투자 전문가 마코 치사리 부사장을 선임하기도 했다. 다만 그렇다할 인수 후보가 없다는 게 문제다. AP 설계 업체인 ARM 인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반독점법' 문제로 단독 인수가 쉽지 않아 그렇다 할 매력도 없다는 게 중론이다. 자동차도 전동화와 디지털화로 첨단 반도체를 요구하게 되면서 기존 전장 반도체 기업들과 그렇다할 시너지를 기대하기도

어렵게 됐다.

설계를 최적화해 파운드리로 연결하는 '디자인 하우스'가 팹리스 대안으로 지목된다. 삼성전자가 이미 시스템 LSI를 통해 설계 역량을 높이고 있는 만큼, 디자인 하우스를 인수해 사업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최근에는 반도체 패키징 부문이 유력한 인수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초미세 공정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패키징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분위기,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를 인수해 뒤쳐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패키징 사업은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이다. 2015년 TSMC에 애플 AP수주 물량을 뺏겼던 이유가 기판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인 '팬아웃 웨이퍼 레벨패키지(FO-WLP)'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도 최근 이를 개선한 '팬아웃패널레벨패키지(FO-PLP)' 기술을 도입하며 추격에 나섰지만 아직 애플 물량을 뺏어올 수 있을지는 묘연한 상태다.

미국 A사가 인수 대상으로 거론된다. A사는 아시아 전역과 유럽 등에 생

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패키징 기술은 물론 테스트 솔루션까지 수행할 수 있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국내에서 처음 반도체를 수출한 야마모토 반도체를 전신으로 하고 있어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상징성도 있다.

A사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인수를 제의받은 적도 없고 매각을 검토하지도 않는다는 것.

반도체가 아닌 로봇이나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 분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삼성전자가 이미 올 초 레인보우로보틱스에 투자를 단행했고, AI에서도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빅스비 등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굳이 인수 합병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업체를 인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현실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오랫동안 자동차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데다가, 전장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내세우고 완성차 사업에 뛰어들면 고객사조차 잃을 수 있어서다.

/김재용기자 juk@metroseoul.co.kr



설 앞두고 버스 증차 실시

민족대명절 설을 앞두고 서울시가 연휴 3일 전인 18일부터 25일까지 고속, 시외버스 증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모습. /뉴스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후임에 이원덕·박화재 등 거론

임추위 첫 회의서 손 회장 제외 오는 27일 숏리스트 확정 예상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용퇴를 결정하면서 차기 회장 후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본격 인선 절차에 돌입하면서 내·외부 출신 간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손 회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나서지 않고 최근 금융권의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하겠다"며 연임 포기를 전격 발표했다.

임추위는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손 회장을 차기 회장 롱리스트(1차 후보군)에서 제외했다. 손 회장은 2017년 말 우리은행 은행장에 이어 같은 해 우리금융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고 이후 2020년 연임에 성공하면서 4년 동안 그룹을 이끌었다.

손 회장의 용퇴로 회장 후보로는 내·외부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1차 후보군에는 현직 임원인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화재 우리금융 사업총

괄 사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임원 중에서는 남기명 전 우리은행 총괄부부장(수석부행장), 우리금융 부사장을 지낸 박영민 전 경남은행장, 황록 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 언급되고 있다.

외부 출신으로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내부 대 외부 인물간 치열한 레이스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내부에선 이원덕 은행장과 박화재 우리금융 사장, 외부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이다. '관치금융'이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과점 주주들이 현직에 있는 내부출신 인물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행장과 박 사장은 지난해 우리은행장 자리를 두고도 경쟁한 바 있다.

임추위는 오는 27일 압축 후보군(숏리스트) 2~3명을 확정하는 뒤 다음 달 초 차기 회장 단독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이승용기자 lsy2665@

코스닥 상장사 잇단 횡령·배임에 투자자 우려

코스닥시장 내부감시 시스템 취약 횡령·배임 올 들어 벌써 4건 발생

코스닥 상장사의 횡령·배임이 줄어 들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내부 감시 시스템이 취약할 뿐 아니라 외부 관심도 적고 주주들의 숫자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외부의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배임 횡령 사고가 더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사공시에 따르면 횡령·배임 건은 지난해 12월 4건에 이어 올 1월에도 지금까지 4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코스닥 상장사 광무는 사내 이사인 신 모 씨로부터 2억5000만원 규

모의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한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0.29%에 해당한다. 광무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멜파스는 지난 10일 4억원대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4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스위스 동포 만난尹 "과학기술 협력 강력히 모색할 것" /사진 뉴스시
▲ 與 규제개혁추진단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는 과도한 규제"

▲ 與 대전시장 신년 인사회... 당권주자 김기현·윤상현·황교안 참석
▲ '10·29참사' 막말 김미나 與창원시의원 '출석정지 30일'



▲ 제주 4·3 기록물 '3만620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 문재인 정부 인사 정책포럼 '사의재' 출범... 친문 구심점 될까 /사진 뉴스시